

침성대 是非

송 상 용
 〈전 成大교수·서양과학사〉

제작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國際科學史會議에서 북한학자들을 만났다. 얘기를 나누다가 「거북선」 한갑을 주었더니 사양한 끝에 한개비만 받으면서 담례로 반쯤 피운 담배한갑을 내밀었다. 「침성대」였다. 龜船과 瞻星臺는 남북한에서 다 자랑거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둘이 한국학계에서는 말썽거리로 떠올랐다. 세계최초의 鉄甲船이라고 알려져 왔던 거북선은 철갑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설이 나와 있다. 우리는 국민학교 때부터 침성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天文臺라고 배워 왔으며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었다. 한국사람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1982년판 「기네스 북」에는 『세계최초의 천문대건물은 남한 慶州에 있는데, 서기 632년에 세워졌고 아직도 남아 있다』고 적혀 있다. 모든 교과서와 안내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침성대는 国宝31호이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귀한 유적이다. 그러나 무엄하게도 이 확고한 通說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이 나타났다.

1973년말 韓國科學史學會는 침성대에 관한 연구성과를 총검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滿蒙史學者 L교수가 처음으로 침성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이듬해 수학자 K교수는 「자유교양」에 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해 가을 S대에서 歷史學會 월례발표회가 있었다. 나는 마침 그 옆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 못들어갔지만 발표자 L교수와 질의에 나선 K교수 사이에 衝突이 일어나 주먹다짐 1보 전까지 갔었다고 들었다.

침성대를 천문대로 보지 않는 점에서는 두분의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냐는

데서 갈라진다. K교수는 침성대가 신라의 과학수준을 과시하는 기념비적 象徴物로서 그 구조는 중국의 「周髀算經」에서 얻은 천문지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L교수는 침성대의 형태가 불교의 우주관인 須彌山을 연상케 한다고 하면서 그 꼭대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이 안치되었으리라고 추측했다.

두 關士가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는 熱戰을 벌이고 있을 때 여기에 뛰어든 것이 물리학자 N교수였다. 그는 두 假說을 단호히 거부하고 과학적 방법에 의한 조사결과 침성대 위에 매우 훌륭한 관측작업장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단언했다. 이제 싸움은 三巴戰이 되었다.

한바탕 논쟁이 휩쓸고 지나간 뒤 1979년 小白山天體觀測所에서 침성대를 再論하는 모임이 있었다. 삼복중이었지만 서늘한 해발 1,500m의 관측소에서 우리는 甲論乙駁으로 밤을 밝혔다. 요양중이던 L교수가 빠진 이 토론회에서 愛國的인 重鎮 몇분은 祭壇說을 맹렬히 규탄했다. 그러나 여기서 代讀된 젊은 한국과학사학자 P교수의 견해는 L교수에게 동정적인 것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토론자 한 분은 높은 분으로부터 祭壇이라는 결론이 나지 않도록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세번째 토론회는 1981년 30명의 학자들이 慶州 현지에 모여 침성대를 답사한 다음 이틀 동안 열렸다. 이 모임은 KBS-TV에서 침성대를 다룬지 얼마 뒤여서 熱氣가 고조되어 있었고 대중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때마침 서울에서 韓日科學史세미나를 끝낸 일본의 과학사학자들도 참석했다.

Y교수는 南山에 제2 침성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대담한 주장을 내놓았으나 아무도 지지하

지 않았다. 건축가 S씨는 天文官이 여왕과 사랑에 빠진 끝에 모든 비밀을 가지고 殉葬당했을 것이라는 기발한 억측을 하기도 했다.

과학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천문대로 보려는 데 비해 역사학자들은 빈약한 文獻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觀測台說에도 N교수, N교수(천문학자)처럼 본격적인 천문대라고 단정하는 強硬派와 Y교수(천문학), L교수(천문학), J교수(한국과학사) 등 穩健派가 나누어져 있다. 懷疑派, 愛國派 외에

나는 좀 생각을 달리한다. 진실을 밝혀 보려는 역사가들의 노력이 어찌서 국위를 矢墜시킨다는 것인가? 설사 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해도 큰일 날 것은 없다.

慶州에서 薊內교수가 당신은 어느편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中立이라고 답할 사람들을 웃겼다. 전문가가 아니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나는 토론을 마련하고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침성대 전문가(?)가 돼버렸다. 그바람에 일본 가서 침성대연구를 소개하는 강연도 했다.



들의 수, 段數에도 의미를 붙이려는 數理派도 있어 판도는 매우 복잡하다.

이 마라톤토론회는 전국의 모든 신문에 요란하게 보도되었다. 학회기사가 늘 그렇듯이 엉터리가 너무 많았다. 나는 거기서 여러 학설들을 요약, 소개했을 뿐인데 엉뚱하게도 천문대 파로 인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기사를 訂正하는 독자편지를 써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보도 타인지 사학계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이 튀어나왔다. 國寶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해서 國威를 손상한다는 얘기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글들을 모아 「침성대논쟁」이란 책을 엮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침성대와의 인연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침성대 시비는 계속될 것이다. 무덤설, 都市計劃 起點說, 外界人の 로키트발사기지설 등 추측은 무성하다. 그래도 결론은 영원히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경주에 가면 관광안내원이 침성대의 곡선은 善德女王의 치마폭을 닮은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須彌山이건 女体건 침성대는 아름답다. 이 예술의 걸작품이 진짜 천문대였다면 반가와하지 않을 한국사람이 어디 있겠는가?